

# “일·휴가를 한 곳서”…전남서 즐기는 블루워케이션

5월 ‘전남 방문의 달’ 맞아  
여수 등 8개 시군 반값 할인  
섬·산림 등 빼어난 자원 만끽

전남도가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섬·해양·산림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기는 ‘블루워케이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 방문의 달 특별 할인혜택으로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은 2023년 여수를 시작으로, 2024년 이후 순천, 나주, 고흥, 함평, 해남, 진도, 구례 등 8개 시군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 워케이션 공유오피스와 숙박 시설은 여수의 섬과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새로운 곳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해상케이블카, 여수예술랜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순천에선 순천만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한 정원 워케이션이 마련됐고, 글램핑 타입의 캐빈하우스와 한옥스테이 순천만에코촌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개울길 마실, 정원해설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나주에선 나주향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고즈넉한 옛집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꾸몄다. 나주읍성 전통인력거로컬트립을 함께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고흥에선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인 나눔연수원을 중심으로 워케이션을 운영하며, 소록도의 봉

사정신을 기리고 고흥 해안가 마을의 여유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례에선 유니크메뉴로 지정된 쌍산재에서 한옥 체험과 함께 지리산 주변의 리조트, 더케이지리산호텔 등에서 업무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진도에선 삼별초공원과 북놀이 체험, 커피 체험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워케이션을 선보인다. 삼별초의 역사를 담은 공원에서 전통 한옥 숙박을 체험할 수 있다.

해남 오시아노 캠핑장에서 캠핑카 워케이션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배경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고 무료 자전거 대여, 카약 등 체험이 가능하다.

함평에선 돌머리해수욕장 캠핑장과 리조트를 활용해 바다경치를 감상하며 근무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13일 “각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살린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여자가 일과 휴가 모두를 누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전남도가 일·휴양 양립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워케이션은 주말을 제외한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1박당 10만 원,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재직자, 1인 사업자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근산 기자



광주비상행동 ‘50대 사회대개혁 요구안’ 촉구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3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 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광주시민 50대 사회대개혁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김영록 지사 “진짜 대한민국으로…투표참여 권장”

국고 확보 중앙부처 소통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5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국민이 가고자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대선 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국고 확보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국가적 혼란과 비상상황을 극복

하고 경제도 다시 회복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손발을 잘 맞춰 도민의 대선 투표 참여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이 국고 확보를 위한 적기”라며 “현재 시기에 중앙 부처의 실·국장, 과장급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이들을 중심으로 국고확보 활

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전남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모든 실국의 사무관부터 과장, 실·국장 등이 직접 현안업무를 챙겨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제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최근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될 정부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주요 선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

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사업·석유화학 무탄소 연료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사업·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해양수산부 2025년 클린(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고향올래 사업 등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도 많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올해는 더 능가하도록 모든 공모 참여 사업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근산 기자

## 전남지역 대학교수 312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순천대와 목포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목포해양대, 동신대, 초당대, 목포가톨릭대 등 전남지역 주요 대학 소속 교수 312명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초당대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등 312명은 1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 대선에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정정서 회복과 국민통합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후보이며,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파탄낸 민생경제 부활, 실추된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두 차례의 당대표, 재선 국회의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역임하면서 보여줬던 뛰어난 리더십과 탁월한 행·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최고의 자질과 능력을 갖

추고 있다고 판단돼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수호나 아니면 또 다시 과거로의 회귀냐를 가리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 후보를 선택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 광주시, 미성년 이혼자녀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 3곳서 교류 지원

광주시는 13일 “이혼 등으로 양육환경이 급변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이혼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광주시는 만나봄(면접교섭) 센터로 지정된 광주동구가족센터, 남구가족센터, 북구가족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해 면접교섭의 방법·시간·장소·자녀 인도 방식 등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미성년 자녀의 심리상담과 교육, 부모와 자녀 간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지원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

특히 면접교섭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신뢰 회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대표전화(1577-9337) 또는 각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이나 신청을 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

## 광주시, 하반기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공근로 등 516명 선발

광주시가 ‘2025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16명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로안전지킴이, 환경정비사업 등 총 260개 사업에 5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근로사업은 85개 사업에 13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75개 사업에 386명이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광주시민이다.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60%),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가점이 부여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주 15~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선발기준 평가표에 의거해 희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오는 6월 23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농심**

**자연정수기간**

**40 YEARS**

자연에서 40년을 거르고 걸러  
신선하고 건강해진 백산수

좋은 물은 오래 걸립니다

천지차이  
**백산수**